

창원 지방 검찰청



2024. 11. 13.

제 목 수사보고【PNR(주) 피플 네트워크스】 및 서버 보관 장소 압수수색 필요성】

-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의자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이하 '공천'이라고 합니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핵심 인물들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포함하여 피의자 김영선의 구체적인 공천 과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수사 결과, 피의자 명태균이 제21대 창원시 의창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現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등에게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의자 명태균이 그 과정에서 (주)미래한국연구소 및 주식회사 피플 네트워크스(이하 'PNR'이라 합니다)의 여론조사 자료를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제공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 그리고, 피의자 강혜경의 진술, 피의자 강혜경과 서명원의 녹취록 등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명태균 등이 위 여론조사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 (주)미래한국연구소 및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는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피의자 명태균이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에게 어떻게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된 범행 경위 내지 피의자 등의 고의 및 공모관계 여부와도 관련된 것이므로, 본 사건의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PNR 및 PNR의 전자정보가 저장된 서버 보관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I 피의자

성명	김영선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직업	전 국회의원
주거	창원시 성산구 [REDACTED]
변호인	변호사 김

성명	명태균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직업	불상
주거	창원시 성산구 [REDACTED]
변호인	없음

성명	강혜경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직업	무직
주거	[REDACTED]
변호인	없음

II 피의사실 요지

【기초사실】

피의자 김영선은 2022. 6. 1.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공천에서 탈락하여 출마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피의자 명태균은 피의자 김영선과 201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의자 김영선이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이었던 사람이며, 피의자 강혜경은 김영선과 2018. 3.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의자 김영선이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의원 비서관 및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고, 피의자 김태열은 2021. 7.경부터 주식회사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의자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 리서치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피의자 김영선은 2022. 8. 23.경 불상지에서 김영선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피의자 강혜경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55,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피의자 강혜경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5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의자 명태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의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의자 명태균에게 정치자금 5,055,000원을 기부하고, 피의자 명태균은 피의자 김영선으로부터 정치자금 5,055,000원을 기부받았다.

피의자 명태균은 이를 비롯하여 2022. 8. 23.경부터 2023. 11. 24.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의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피의자 강혜경을 통하여 피의자 김영선으로부터 정치자금 합계 76,206,000원을 각각 기부받았다.

이로써 피의자 명태균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의자 김영선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순번	범행시기	범행수법	금액(원)
1	2022. 8. 23.경	김영선은 국회의원 세비 중 절반 상당의 금원을 강혜경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하고, 강혜경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의자 명태균에게 전달	5,055,000
2	2022. 9. 20.경	상동	4,250,000
3	2022. 10. 22.경	상동	5,113,000
4	2022. 11. 20.경	상동	5,090,000
5	2022. 12. 21.경	상동	5,080,000
6	2023. 1. 20.경	상동	7,118,000
7	2023. 2. 21.경	상동	5,260,000
8	2023. 3. 20.경	상동	5,570,000
9	2023. 4. 28.경	상동	3,300,000
10	2023. 5. 21.경	상동	5,000,000
11	2023. 6. 22.경	상동	5,000,000
12	2023. 7. 24.경	상동	3,800,000
13	2023. 8. 22.경	상동	5,320,000

14	2023. 9. 25.경	상동	4,450,000
15	2023. 10. 22.경	상동	4,800,000
16	2023. 11. 24.경	상동	2,000,000
합계			76,206,000

여백

III 주요 수사경과

○ 기 제출한 검찰 의견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이 구속수사 필요성)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이 구속수사 필요성) 중

1 사건개요 **3** 수사진행경과 기재 부분과 같습니다.

IV 범죄혐의의 소명

○ 기 제출한 검찰 의견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이 구속수사 필요성)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이 구속수사 필요성) 중

4 피의자 김영선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죄혐의 소명1) 기재 부분과 같습니다.

V 압수수색 필요성

1 구체적인 공천 과정 확인 필요

○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의자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 현재까지 수사 결과, 피의자 명태균이 제21대 창원시 의창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 現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등에게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이와 관련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22. 4. 28. 13:01경 함성득(대통령 측근)과 주고받은 메시지

▶ 명태균 형수한테 제가 보낸 문자입니다.

▶ 명태균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의원을 지켜주세요.

(중략)

김영선의원을 살려 주세요.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

(중략)

윤상현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라고 해주세요.

(중략)

▶ 명태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상현 의원을 이준석 대표에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저 명태균 입니다.

(중략)

그때 김영선을 날린 사람이 바로 박완수 의원 입니다.

그일이후 2년 동안 모든 생계를 집어치우고 서울에 올라와 김종인 위원장을 도와주고,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대표를 도와줄때도 댓가로 돈은 필요없다 김영선만 도와 달라는게 제 요구조건이었습니다.

사모님, 도와주세요.

(중략)

▶ 함성득 알겠어요.

▶ 함성득 윤상현에게 김영선문제로 대표가 전화행을 잘자

- 피의자 명태균이 2022. 4. 28. 함성득에게 '김영선을 전략공천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피의자 명태균과 함성득 사이의 메시지로 확인되고,

여 백

명태균이 '22. 5. 9.경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주고받은 메시지

- ▶ (00:23)이준석 당선인쪽에서 창원의창 경선실시하라고
- ▶ (00:23)이준석 왔다는거같은데요
- ▶ (00:25)명태균 아닙니다
- ▶ (00:25)명태균 윤한홍이 장난친 겁니다.
- ▶ (00:25)이준석 윤한홍이 누구한테요?
- ▶ (00:26)명태균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 ▶ (00:26)명태균 윤한홍이 윤상현의원에게요
- ▶ (00:27)명태균 사모님이 두 번이나 윤상현의원에게 전화드려구요.
- ▶ (00:27)이준석 오늘 오후 4시에 저한테 한기호 총장이 카톡보내놓은걸 방금 봤는데
- ▶ (00:27)명태균 김영선의원이 공천받는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 (00:27)이준석 한기호 총장이 윤한홍 말을 들었을 리가 잇는데
- ▶ (00:28)명태균 당선인은 그런말 한적 없습니다.
- ▶ (00:28)명태균 확인해 보세요
- ▶ (00:29)명태균 (사진 파일 전송, 파일 미확보)
- ▶ (00:30)명태균 윤상현의원에게도 이런식으로 장난을 치는 문자를 보냈어요
- ▶ (00:39)명태균 윤대통령님께 꼭 전화해보세요? 윤대통령이 아니라 그 측근이라 사람이 보냈을 겁니다.
- ▶ (00:40)명태균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드릴겁니다.
- ▶ (00:46)명태균 (사진 파일 전송, 파일 미확보)
- ▶ (00:53)명태균 (사진 파일 전송, 파일 미확보)
- ▶ (09:00)명태균 의문나는게 있으시면 사모님께 전화드리면 됩니다.
- ▶ (10:12)명태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한테 전화오셨습니다.
윤한홍, 권선동의원에게 그런말 들은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의
원에게 전화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 (10:15)이준석 넵

- 피의자 명태균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하여, 공천 발표일(5. 10.) 하루 전날인 2022. 5. 9. 이준석에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 해서 김영선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여 백

명태균 사용 PC에서 확인된 22. 5. 9. 10:49경 통화파일 링크기록

통화 녹음 김건희사모(은석열승장)_220509_j04924.mk

2023/07/06 11:59:21 UTC-09:00 2023/07/06 11:59:21 UTC-09:00 2023/07/06 11:59:21 UTC

- ※ 피의자 명태균은 2022. 5. 9. 10:49:24부터 시작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하였고, 2023. 7. 6. PC에서 USB에 저장된 위 파일을 실행하였으나 파일 자체는 남아있지 않음
- ※ 2022. 5. 9.은 공천발표일(5. 10.) 전날

- 피의자 명태균이 2022. 5. 9.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통화파일 링크 기록도 확인되며,
- 또한, 피의자 명태균은 2022. 5. 9. 이준석과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같은 날 10:01경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약 2분 30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피의자 명태균 사이의 아래와 같은 통화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태균 사용 PC에서 확인된 22. 5. 9. 10:01경 통화파일 링크기록

통화 녹음 윤석열대통령_220509_T00104.mk

2023/07/26 14:17:51 UTC-09:00 2023/07/26 17:00:13 UTC-09:00 2023/07/26 17:00:13 UTC

더불어민주당 공개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피의자 명태균 사이 통화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듣고 왔잖아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들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이의 통화 녹취

- 그 외 기 제출한 검찰 의견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 이 구속수사 필요성) 수사보고서(피의자 김영선, 명태균, 배 , 이 구속수사 필요성) 중 **4** 피의자 김영선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범죄혐의 소명1] 기재 부분에도 다수 증거자료가 확인됩니다.

○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핵심 인물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 11. 1.자 MBC 「'개입' 넘어 '공천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개입' 넘어 '공천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영역 2024-11-01 20:08 | 수정 2024-11-01 21:28

📁 📄 🔍 🔄 📌



'개입' 넘어 '공천거래' 의혹..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영역 2024-11-01 20:08 | 수정 2024-11-01 21:28

📁 📄 🔍 🔄 📌



○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온전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이준석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개입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피의자 명태균의 여론조사 자료 제공과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

- 피의자 명태균이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여론조사 자료를 이준석, 김전희 여사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확인됩니다.

명태균이 '22. 4. 4. 17:32경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주고받은 메시지

- ▶ 명태균 PNR 여론조사에서
김영선(38.3%) VS 김지수(24.9%)
김영선 전의원이 13.4%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표님 꼭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체조사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 이준석 넵

피의자 명태균이 '22. 4. 7. 15:02경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주고받은 메시지

- ▶ 명태균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김영선(46.7%) VS 김지수(33.1%)
김영선 전의원이 13.6%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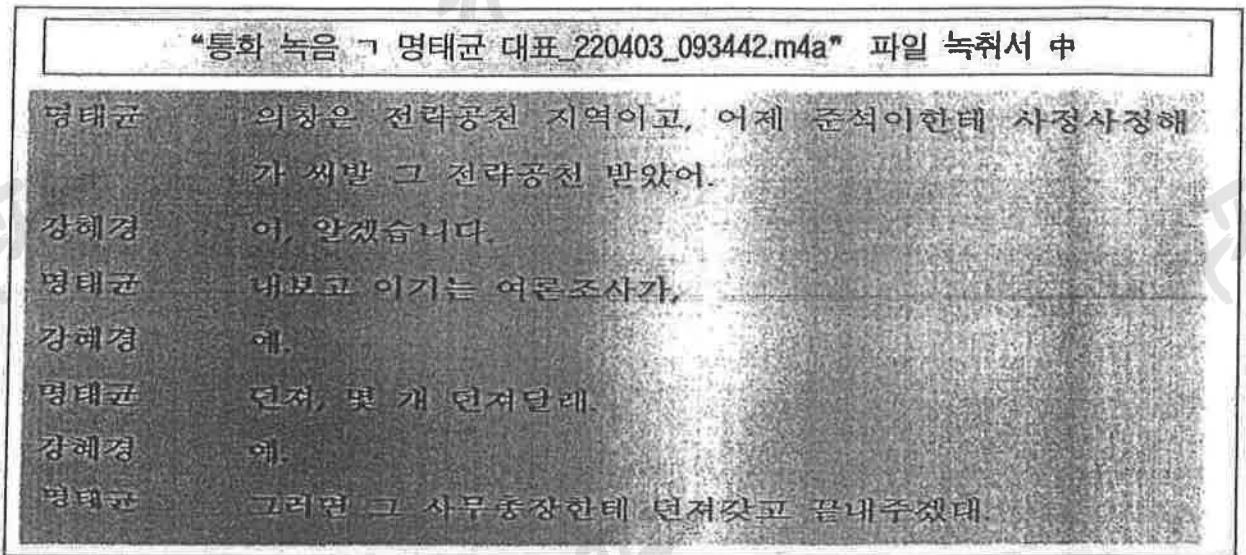
- ▶ 이준석 넵

- 피의자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PNR 여론조사를 제공하면서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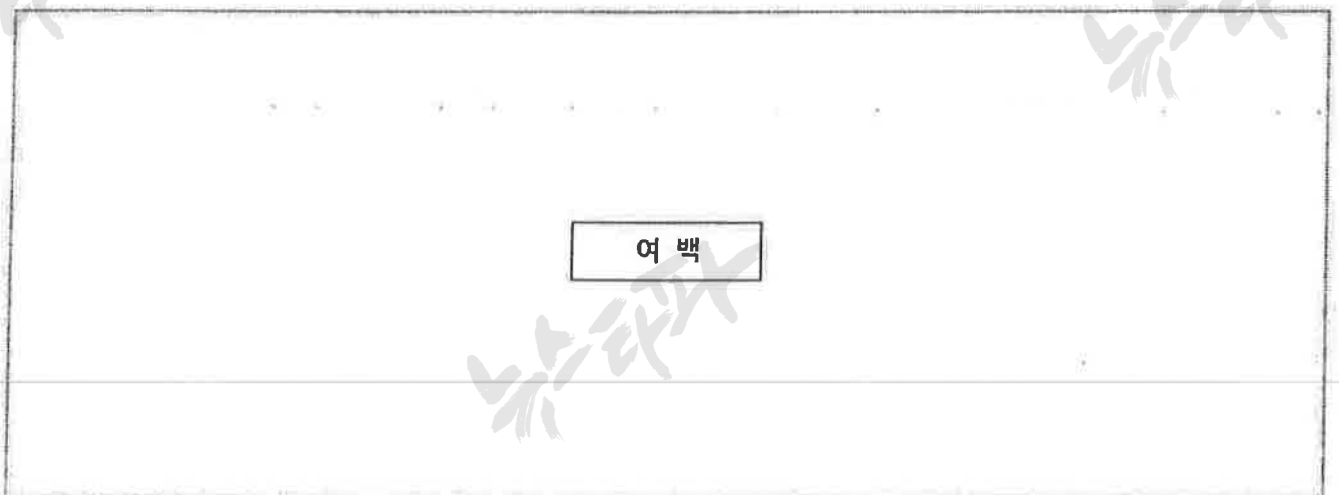
명태균이 '22. 4. 24. 13:58경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과 주고받은 메시지

- ▶ 명태균 제목 : 파일
내용 : 220422-의창-여심위-2.pdf
URL: https://dn.talk.kakao.com/talkf/o25Y4VYEiP/scRlkTXhJ0SygeGbkQ1JM1/f_ee199ab1505b.pdf
파일 크기: 565,968 bytes
유효 기간: 2022-05-08 13:58:25 (UTC+09:00)
- ▶ 명태균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표용 여론조사입니다.
- ▶ 이준석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
- ▶ 명태균 네. 감사합니다

- 피의자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하자, 이준석이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게 함성득 교수 통해서 전달하라고 대화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 피의자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이준석에게 전략공천을 받았는데, 이기는 여론 조사를 몇 개 던져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도 확인됩니다.
-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이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PN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각종 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한 내용도 확인됩니다.



「공표용 여론조사」 관련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2021. 6. 26자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PNR 여론조사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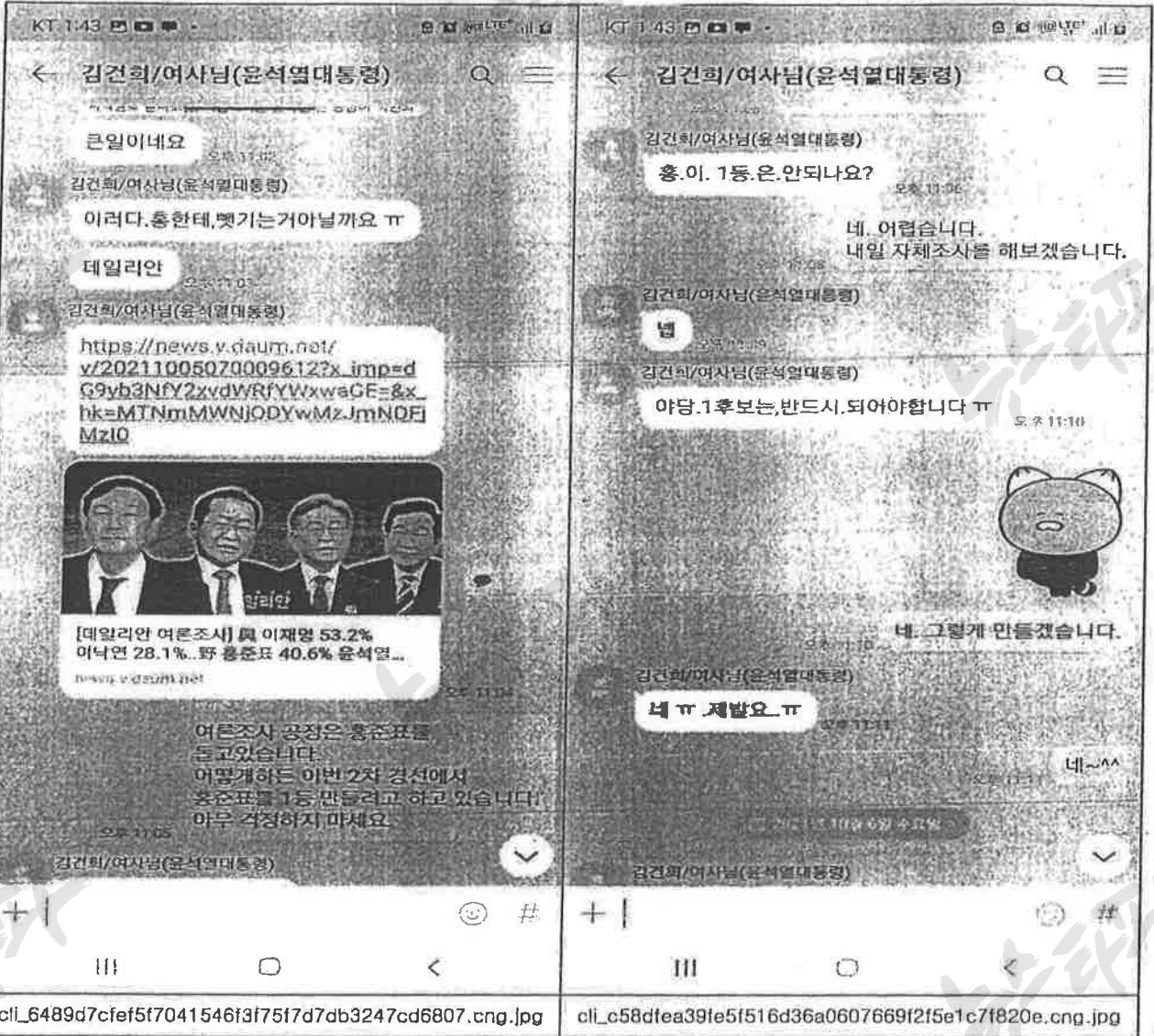


□ 2021. 6. 26자 대화 내용

- (명태균↔김건희)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이 이준석 후보의 당대표 후보자 합동연설회 연설문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전송하고,
 - 익일 공표 예정인 머니투데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전송하면서 "그때까지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 위 여론조사 결과는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임 ([2021. 6. 27자 머니투데이 「윤석열·이재명 지지율 주춤...양자대결 격차는 더 벌어져」])

「공표용 여론조사」 관련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2021. 7. 3.자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PNR 여론조사 관련]



□ 2021. 7. 3.자 대화 내용

- (명태균↔김건희) 명태균이 익일 공표 예정인 대선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전송하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자, 김건희 여사가 '충성'이라고 말함. 위 여론조사 결과는 머니투데이 및 미래한국연구소가 PNR과 실시한 여론조사로 보이고, 관련기사는 아래와 같음 ([2021. 7. 4.자 머니투데이 「[the300] [머니투데이-PNR 3일 여론조사]」 PNR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32.7%로 1위를 차지,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5.5%로 2위를 기록)

「자체 여론조사」 관련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2021. 7. 28.자 뉴데일리 및 시사경남 의뢰로 실시한 PNR 여론조사 관련]



□ 2021. 7. 28. ~ 2021. 7. 29.자 대화 내용

○ (명태균↔김건희)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를 보내는 한편,

- 2021. 7. 28.자 뉴데일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이는 자료를 보내면서 "내일 오후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 위 여론조사 결과 관련 언론보도는 2021. 7. 29.자 뉴데일리 「[뉴데일리 여론조사] 윤석열 32.1%, 이재명 25.7%, 이낙연 18.8%... 최재형 5.7%, 첫 4위」로 보이고,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임**

○ 위 메시지 등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대선 여론조사 자료가 **PN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임이 확인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강혜경은 피의자 명태균은 제20대 대선 무렵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분석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약 일주일 후에 피의자 김영선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시 의창구 지역구에 전략공천되었는데, 이를 두고 피의자 명태균이 '▲3억 원 대신 피의자 김영선을 전략공천하도록 하였다, ▲자신 때문에 피의자 김영선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합니다.

피의자 강혜경 검찰 수사과 피신조서(제1회) 中

문 여론조사를 하고, 결과분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에게는 창원 지역에 여론조사를 하는 명태균보다, 훨씬 더 지명도가 높고, 경험도 많은 여론조사업체들이 더 많았을 것이며, 그것을 분석하는 전문가나 교수들도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가요.

답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명태균과의 만남이 있었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분석표를 가지고 대통령에 나갈 것을 건의하였고, 그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은 좀 믿고 의지를 하는 편이었습니다...(중략)...청구서를 가지고 돈을 받아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중략)...다йт 총 금액이 3억이 넘었습니다. 명태균이 그 청구서를 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가 의원님이 의창구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를 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단수로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이 되었는데,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을 도와 준 대가로 전략공천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3억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 백

2024. 10. 29.자 강혜경 2회 피신조서 中

문 김기성이 명태균을 수행하여 정치인을 만난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답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명태균과 김 이 2022. 3. 21. 대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들고 서울에 올라간 일입니다. 명태균과 김 이 서울에 올라가서 실제로 누구를 만난 것인지는 모르지만, 청구서를 챙겨 들고 갔으니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

문 피의자는 명태균과 김 이 서울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답 명태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돈 받아 온다고 하면서 '20억 받아올까 30억 받아올까' 엄청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길래 속으로 '3억이라도 받아와라'고 생각했습니다.

- 중략 -

문 명태균이 위와 같이 2022. 4. 7.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고 있나요

답 아니오,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다만, 추측건대 '공천 관련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이준석 아니면 김건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여 백

- 김태열도 피의자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 대가로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2024. 10. 28자 김태열 2회 피신조서 中

문 피의자는 자술서에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 기간인 3월 말경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여러 가지 비용 청구를 한다고 여태껏 조사한 결과의 자료들을 정리하여 강혜경에게 요청하였으며 '10억을 받을까? 20억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서울에 갈 때 자료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껏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이 그날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강혜경이 명태균의 비행기표까지 다 확보해 뒀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날 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서 김기성을 데리고 가지 않고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간 것 같습니다.

문 명태균이 대선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했었는데, 위 시기와 일치하는가요

답 김영선 공천이 2022. 5. 10.이니까 3월 말경에 갔으면 시기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③ 미래한국연구소의 제20대 대선 여론조사 비용 부담 및 여론조사 제공

1. 개요

- 이상과 같이, 피의자 명태균이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을 위해 여론조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료 중에는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 피의자 강혜경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2022. 3. 9.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피의자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비용을 명세표로 정리하였는데, 해당 명세표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가 81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은 합계 375,2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 한편, 위 375,200,000원은 공표·비공표 공히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여론조사 자료가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제공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2. 강혜경이 작성한 제20대 대선비용 집계표

- 피의자 강혜경이 2024. 10. 30. 임의 제출한 USB에는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xlsx' 파일이 존재하였고, 위 파일을 실행한 바,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공표조사, 자체조사, 면밀조사를 한 내역 및 비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 즉, 미래한국연구소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공표조사는 2021. 4. 18.부터 2022. 3. 2.까지 58회에 걸쳐 255,200,000원을 부담하고, 자체조사는 2021. 5. 14.부터 2022. 1. 7.까지 14회에 걸쳐 56,000,000원을 부담하고, 면밀조사는 2022. 2. 28.부터 2022. 3. 8.까지 10일동안 9회에 걸쳐 64,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여백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xlsx 파일

A	B	C	D	E	F	G
1	미래한국연구소(시사경남) 대선 공표조사 현황			미래한국연구소 대선 자체조사 현황		
2	NO	일시	공동전행 언론사 금액(vat포함)	NO	일시	금액
3	1	2021-04-18	머니투데이 4,400,000	1	2021-05-14	4,000,000
4	2	2021-05-02	머니투데이 4,400,000	2	2021-08-13	4,000,000
5	3	2021-05-09	머니투데이 4,400,000	3	2021-08-27	4,000,000
6	4	2021-05-15	머니투데이 4,400,000	4	2021-09-03	4,000,000
7	5	2021-05-22	머니투데이 4,400,000	5	2021-09-17	4,000,000
8	6	2021-05-29	머니투데이 4,400,000	6	2021-09-29	4,000,000
9	7	2021-06-05	머니투데이 4,400,000	7	2021-09-30	4,000,000
10	8	2021-06-12	머니투데이 4,400,000	8	2021-10-19	4,000,000
11	9	2021-06-19	머니투데이 4,400,000	9	2021-10-21	4,000,000
12	10	2021-06-26	머니투데이 4,400,000	10	2021-10-25	4,000,000
13	11	2021-07-03	머니투데이 4,400,000	11	2021-10-28	4,000,000
14	12	2021-07-28	뉴데일리 4,400,000	12	2021-11-22	4,000,000
15	13	2021-07-31	세계일보 4,400,000	13	2021-12-14	4,000,000
16	14	2021-08-07	뉴데일리 4,400,000	14	2022-01-07	4,000,000
17	15	2021-08-08	영남일보 4,400,000	자체조사 비용 합계		56,000,000
18	16	2021-08-11	뉴데일리 4,400,000	대선 면밀조사 현황		
19	17	2021-08-18	뉴데일리 4,400,000			
20	18	2021-08-29	뉴데일리 4,400,000	NO	일시	금액
21	19	2021-09-04	뉴데일리 4,400,000	1	2022-02-28	6,000,000
22	20	2021-09-11	뉴데일리 4,400,000	2	2022-03-01	6,000,000
23	21	2021-09-23	뉴데일리 4,400,000	3	2022-03-02	6,000,000
24	22	2021-10-02	뉴데일리 4,400,000	4	2022-03-03	6,000,000
25	23	2021-10-16	뉴데일리 4,400,000	5	2022-03-04	6,000,000
26	24	2021-10-23	뉴데일리 4,400,000	6	2022-03-05	12,000,000
27	25	2021-10-30	뉴데일리 4,400,000	7	2022-03-06	6,000,000
28	26	2021-11-06	뉴데일리 4,400,000	8	2022-03-07	6,000,000
29	27	2021-11-13	뉴데일리 4,400,000	9	2022-03-08	10,000,000
30	28	2021-11-20	뉴데일리 4,400,000	대선면밀조사 총금액		64,000,000
31	29	2021-11-27	뉴데일리 4,400,000	총 금액		
32	30	2021-12-04	뉴데일리 4,400,000			
33	31	2021-12-11	뉴데일리 4,400,000	375,200,000		
34	32	2021-12-14	시사경남 4,400,000			
35	33	2021-12-16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36	34	2021-12-18	뉴데일리 4,400,000			
37	35	2021-12-23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38	36	2021-12-25	뉴데일리 4,400,000			
39	37	2021-12-30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0	38	2022-01-01	뉴데일리 4,400,000			
41	39	2022-01-04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2	40	2022-01-08	뉴데일리 4,400,000			
43	41	2022-01-13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4	42	2022-01-15	뉴데일리 4,400,000			
45	43	2022-01-20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6	44	2022-01-20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7	45	2022-01-22	뉴데일리 4,400,000			
48	46	2022-01-27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49	47	2022-01-29	뉴데일리 4,400,000			
50	48	2022-02-04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1	49	2022-02-05	뉴데일리 4,400,000			
52	50	2022-02-06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3	51	2022-02-10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4	52	2022-02-12	뉴데일리 4,400,000			
55	53	2022-02-13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6	54	2022-02-17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7	55	2022-02-19	뉴데일리 4,400,000			
58	56	2022-02-24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59	57	2022-03-01	뉴데일리 4,400,000			
60	58	2022-03-02	프라임경제신문 4,400,000			
61	공표조사 중 지출금액		255,200,000			

○ 위 집계표와 관련하여, 피의자 강혜경은 검찰에서 “명태균이 그 무렵 김해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자주 방문하여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대화를 하기 얼마 전에 ‘대통령선거 때 여론조사 했던 비용 청구서를 만들어달라’ 고 요구했고, 그 청구서를 들고 서울에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xlsx’ 파일이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강혜경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혜경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문 피의자와 명태균이 2022. 3. 20. 12:22경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명태균과 김기성은 다음 날인 2022. 3. 21.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명태균과 김 기은 어디에 갔던 것인가요

“등화 녹음 기 명태균 대표 220320 122225.m4a” 녹음파일 중

(강혜경) 여보세요
 (명태균) 예, 여기 김 사장님하고 저하고 내일 9시 50분 비행기.
 (강혜경) 알겠습니다.
 (명태균) 예예예, 저 대한항공.
 (강혜경) 네

답 명태균이 그 무렵 진해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자주 방문하여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위 대화를 하기 얼마전에 ‘대통령선거 때 여론조사 했던 비용 청구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그 청구서를 들고 서울에 간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3. 미래한국연구소가 위 집계표의 내용과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

○ 한편, 위 집계표의 내용대로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가 실시된 내역 58건이 확인되었는데, 먼저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 뉴데일리, 세계일보, 영남일보, 시사경남(명태균 실소유), 프라임 경제신문과 공동의뢰하여 PNR이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즉, 위 공표용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게시되어 있었고, 동 기간 PNR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대부분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한 여론조사 내역
(조사기관 PNR, 기간 '21. 4. 18.~'22. 3. 2.로 검색, 총
71건으로 확인되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58건 포함)

등록번호	조사기관명	조사의뢰자	여론조사명칭(지역)	등록일	사·도
7920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7-03	전국
7897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6-26	전국
7884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6-19	전국
7871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6-12	전국
7855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6-05	전국
7839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5-29	전국
7819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5-22	전국
7809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5-15	전국
7800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5-09	전국
7788	PNR-(주)피플네트웍스	머니투데이/미래한국연구소	전국 정치(정례)조사 대통령선거 정당지지도 국정평가	2021-05-02	전국

○ 나아가 위 집계표의 내용대로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의 내용(비공표이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미등록)이 23건(자체조사 14건, 면밀조사 9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강혜경이 제출한 USB() 내 폴더에 존재합니다.

- 피의자 강혜경이 임의제출한 USB 내에는 '대선 면밀조사(21.02.28~22.03.08)', '자체조사' 폴더가 존재하고, 위 각각의 폴더 내에는 대선 면밀조사 건수 9건, 자체조사 건수 14건이 확인됩니다.

강혜경_64GB()_USBW2024-11-04_1W자체조사 W21.09.29 대선조사 폴더 내 캡처		
대선 면밀조사 (21.02.28~22.03.08)	2024-11-08 오후 1:42	파일 폴더
자체조사	2024-11-08 오후 1:42	파일 폴더
22.02.28결과현황 대선	2024-10-14 오전 1:20	한컴오피스 2018 한셀 포함 엑셀 문서
대선 면밀조사 (21.02.28~22.03.08)	2024-10-17 오전 4:40	ALZip ZIP File
대선 자체조사 (21.05.14~22.01.07)	2024-10-18 오후 5:26	ALZip ZIP File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	2024-10-19 오전 7:04	한컴오피스 2018 한셀 포함 엑셀 문서

4. 미래한국연구소가 위 81회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

○ 위 집계표를 작성한 피의자 강혜경은 진술한 것과 같이 미래한국연구소가 위 81회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하였고, 그 비용이 약 3.7억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 위 집계표 중 미래한국연구소의 의뢰로 공표조사 58회를 실시한 PNR 대표 서명원은 검찰에서 위 공표조사 58회의 비용은 모두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하고, 공동의뢰자인 머니투데이, 뉴데일리 등 언론사는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PNR 대표 서명원 진술조서

문 진술인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를 하고 받지 못한 돈이 있는
가요

답 현재 받지 못한 돈이 대선 뿐만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한 모든 것에 대하여
3,600만원 가량의 미수금이 남아있습니다.

문 미래한국연구소의 정산은 어떻게 해 왔는가요

답 원래 신뢰가 있으면 후불로도 하는데, 미래한국연구소는 신뢰가 없어서 대선
때는 거의 바로바로 받았습시다. 돈 안 주면 다음 여론조사를 안 하면 되는데요.

문 그런데 대선 막바지인 2022. 2경부터는 애네가 미수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20대 대선 관련하여 진술인의 회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

사의뢰자가 미래한국연구소나 시사경남 한 곳으로 된 곳은 없고, 전부 프라
임경제신문, 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과의 공동 의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답 왜 공동의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혜경으로부터 조사의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강혜경으로부터 받긴 했지만, 의뢰자가 모르는 여
론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의뢰를 받으면 처음에는 꼭 의뢰자를 확
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거나 만나기도 하는데, 프라임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는 카톡으로 확인한 것 같고, 뉴데일리는 편집 국장을 직접 만났습시다. 당시
명태균, 김태열과 함께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결국,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회의 여론조사는 모두 미래한국연구소가
비용부담을 하고, 일부 PNR에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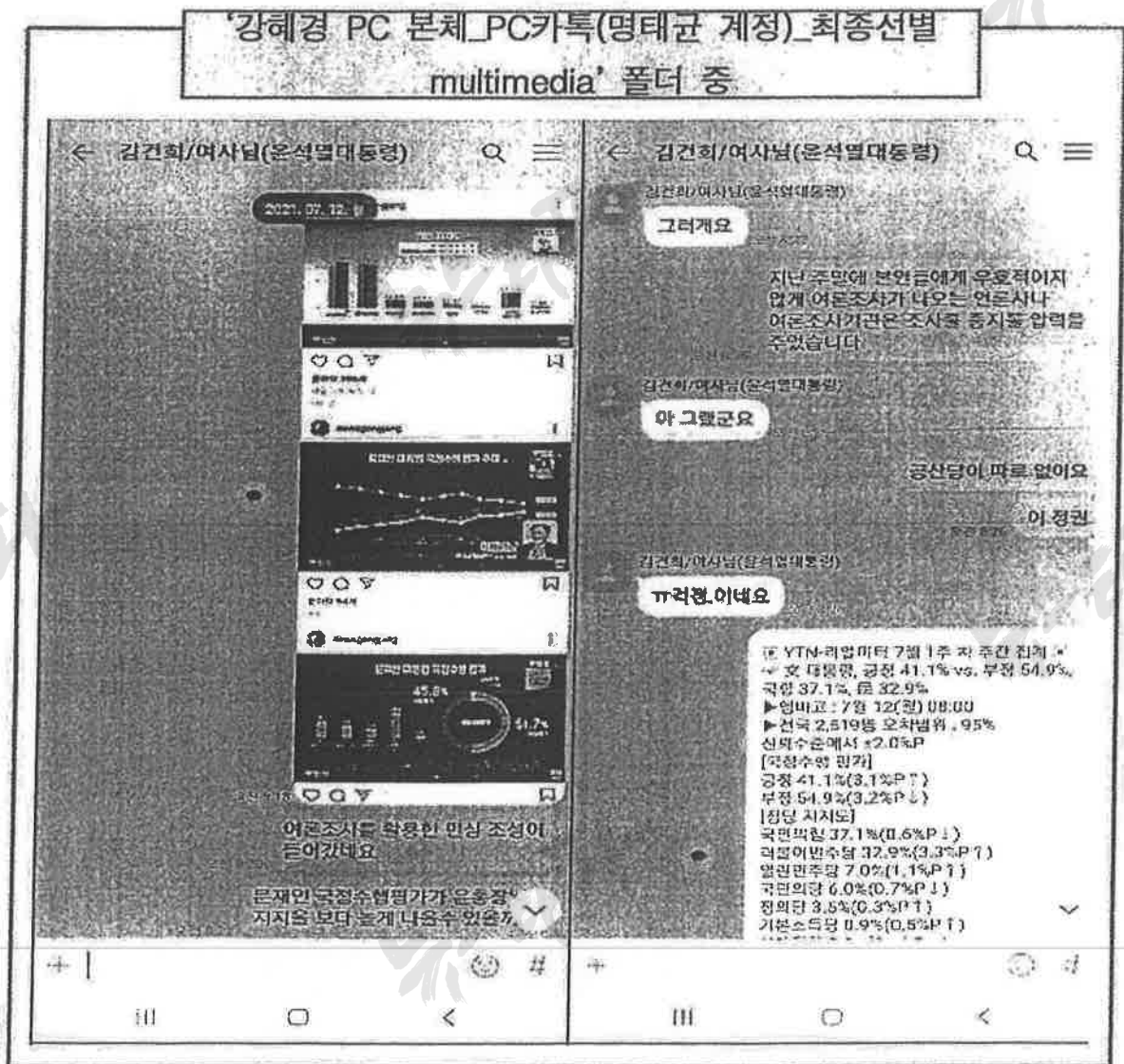
5.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명태균의 비용부담으로 실시 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가능성 관련

○ 피의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2021. 7. 5.자 대화에 의하면, 김건희가 '머투 편집국장이 다음주부터 피엔알 여조 중단시킴. 숫자가 이상하다고(윤이 높게 나온다고) / 뉴시스는 편집국장이 글로벌리서치랑 아는 사이라 갑자기 진행 이재명 쪽에서 머투에 피엔알 조사 문제삼아왔음. 그게 통한 듯. 머투에 항의 필요 누가 보내왔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명태균이 '제가 정리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ㅎㅎ'라고 답하는데,



-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PNR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 점, 그런데 '이재명 측의 항의로 머니투데이가 PNR 여론조사를 중단 할까봐 걱정하는 점이 확인됩니다.

○ 나아가, 피의자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2021. 7. 12.자 대화에 의하면, 피의자 명태균이 '지난 주말에 본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은 조사를 중지를 압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하고, 김건희가 'ㄷ 걱정. 이네요'라고 답하자 명태균이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답하는바,



-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인 점과 이재명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이재명측에서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최초 만남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태균, PNR, 머니투데이를 통해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가, 이재명 측의 압력으로 위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 보도를 중지하려고 하자 걱정하였고, 명태균이 그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찾았다고 답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 실제로, 위 2021. 7. 12.자 전후로 그 직전 2021. 7. 3.자 PNR 의뢰 여론조사는 머니투데이가, 2021. 7. 28.자 여론조사는 뉴데일리에서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위 대화와 같이 피의자 명태균이 '머니투데이'에서 '뉴데일리' 등으로 여론조사 게시 언론사를 변경하여 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1. 7. 3. 이후 PNR이 조사한 여론조사는 더 이상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되지 않습니다.

대선조사비용 집계표 22.03월.xlsx 중			
11	2021-07-03	머니투데이	4,400,000
12	2021-07-28	뉴데일리	4,400,000

○ 위와 같은 대화 내역, 여론조사 의뢰기관 변경 등을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는 명태균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4] 여론조사 자료의 조작 가능성

1. 개요

-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 등 81회의 여론조사가 상당부분 조작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여론조사의 조작 방법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Raw-data 자체를 조작하는 방안(설문조사의 결과 달리 로데이터를 조작), ② 특정연령·성별에 가중치를 주거나 설문조사를 유리하게 분류하는 방법, ③ 다른 여론조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꾸며내는 방법(속칭 '그리기')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2024. 11. 9.자 수사보고(여론조사 결과조작 관련 서명원, 강혜경 진술 확인) 참고

2. 명태균과 강혜경의 대화녹음

- 당청에서 2024. 9. 30. 피의자 강혜경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SM)에는 피의자 강혜경과 피의자 명태균 사이의 2021. 9. 29.자 녹음파일 2개(파일명 : 명태균 대표_210929_153301.m4a, 명태균 대표_210929_165010.m4a)가 존재 하였습니다.
-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명태균은 2021. 9. 29. 15:33경 강혜경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가 여성하고, 맞춰가 곱하기 한 해갖고 한 2천 개 만드소'라고 말하고, 이어 '돈 얼마 들어왔어요?'라고 묻자 피의자 강혜경은 '4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라고 답합니다.

여 백

2021. 9. 29. 15:33경 명태균, 강혜경 대화녹음

명태균 :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가 여성
하고, 맞춰가 곱하기 한 해갖고 한 2천
개 만드소

강혜경 : 4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강혜경 : 이거 가지고요?

명태균 : 네 그럼 됐어요.

명태균 : 네. 그래 치아뿌지 뭐...

강혜경 : 알겠습니다.

강혜경 : 어~ 알겠습니다.

명태균 : 보고서 바로 해요.

명태균 : 그게 안 나아요?

강혜경 : 지금 바로요?

강혜경 : 네.

명태균 : 네.

명태균 : 돈 얼마 들어왔어요?

강혜경 : 알겠습니다.

명태균 : 보고서 해갖고 내 주뿌고 치아 뿌구로

강혜경 : 알겠습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피의자 강혜경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40만 원의 의미와 관련하여,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 원의 전화 비용이 든다. 그런데 2000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24. 10. 21.자 "강혜경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지시'"

경향신문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가 드
고될 때 조작된 조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했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조작했
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며 "(명씨가) 지시할 때 일부러 이 데이터를 조금 손 대라, 조작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공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아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후보(윤 대
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걸로 안다"며 "명씨 녹취에도 윤석열 (전 검찰)증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자
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물로도 가지고 갔고 나중에는 카카오톡(메신저)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
리면 전달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를 받은 윤 대통령이 명씨에
게 칭찬이나 격려를 해줬느냐"는 질문에는 "틀쭉해한다라는 말은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했느냐'라고 묻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보정이 아
니라 조작했다"고 답했다. 그는 "(보통) 500~600개의 샘플을 추출한다고 할 때 40만원의 전화 비용
이 든다"며 "그런데 2000개 샘플로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이 얘기는 500개 샘플에다가 곱하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20대와 30대의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20% 올리
라는 것은 20대와 30대 중 윤석열 후보 지지 응답에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 또한 피의자 명태균은 2021. 9. 29. 16:50경 피의자 강혜경에게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에게 나가는 거니까, 윤석열이를 올려 갖고 홍준표 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어소, 예 예 올라가는거라서 그 젊은 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무응답 한 애 그 개수 올려가지고.. 2~3% 흥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는 피의자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하태경’ 등 외부에 유출하기 위해 ‘500~600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2천 개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2021. 9. 30.자 녹음파일(파일명 : 명태균 대표_210930_104636.m4a)에 의하면,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그 여론에서 들리는 거 하고 있어요. 녹음이 안 왔어요?’라고 묻고, 강혜경이 ‘아니요. 녹음을 한 문항만 해서 바로 주신다고 얘기는 됐고요. 아까 작업이 한 11시부터 된다 하시더라고요.’라고 답하자 다시 ‘그 4명 중에도 항상 물어보는 게 최종 경선에 그 저. 윤석열 유승민 그 다음에 누구지? 홍준표. 그 다음에 황교안이 한 번 넣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강혜경이 ‘황교안 넣고? 어제 빼라 하셨는데. 넣을까요? 원희룡, 하태경, 최재영, 이렇게 3명 넣으라 하셨거든요.’라고 답하였고, 명태균은 ‘그리고 그걸 교차 분석하면 앞에 야당 의원 중 여당 그 사람 교체하면 나머지 떨어진 표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표나재?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종장 전화했는데, 궁금해 하더라고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여 백

2021. 9. 30. 10:46경 피의자 명태균, 피의자 강혜경
대화녹음

명태균 : 그 여론에서 놀리는 거 하고 있어요.	하지?
강혜경 :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강혜경 : 그쵸. 하다가 끊어버리니까.
명태균 : 녹음이 안 왔어요?	명태균 : 그러면 고 세 사람만 넣어 갖고 고래
강혜경 : 응. 아니요. 아니요. 녹음을 한 문항 만 해서 바로 주신다고 얘기는 됐고 요. 아까 작업이 한 11시부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갖고 누가 누굴 더 지지 하느냐 이 렇게 물어보면. 나오겠지 그제?
명태균 : 그 4명 중에도 항상 물어보는 게 최 종 경선에 그 저. <u>윤석열 유승민 그 다음에 누구지? 홍준표. 그 다음에 황교안이 한번 넣고.</u>	강혜경 : 네
강혜경 : <u>황교안 넣고? 어제 빼라 하셨는데. 넣 을까요? 원희룡, 하태경, 최재영 이렇게 3명 넣으라 하셨거든요.</u>	명태균 : 그리고 그걸 교차 분석하면 앞에 야당 의원 중 여당 그 사람 교체하면 나 머지 떨어진 표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표나재?
명태균 : 너무 질문이 똑같은 게 많으면 안	강혜경 : 네. 네. 네.
	명태균 :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u>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 하더라고요.</u>
	강혜경 : 네.

3. 강혜경이 제출한 USB에서 확보한 2021. 9. 29. 및 2021. 9. 30.자 여론조사

가. 2021. 9. 29.자 자체 여론조사 자료

- 피의자 강혜경은 2024. 10. 30. 당청에서 자신의 외장하드 등 3개의 저장 매체를 임의제출하였고, 그 중 'USB()'에서는 2021. 9. 29.자 및 2021. 9. 30.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강혜경_64GB(,_USB\2024-11-04_1\자체조사).
- 위 USB 중 '21.09.29 대선조사' 폴더에서는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의 대화 녹음과 같이 실제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자체대선조사 여론조사 자료가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강혜경_64GB USBW2024-11-04_1W자체조사
W21.09.29 대선조사 폴더 내 캡처

이름	수집한 날짜	유형	크기
21.09.29음성(대선자재)	2021-09-29 오후 1:42	각종 폴더	
그래프	2021-09-29 오후 1:42	각종 폴더	
21.09.29 무선.rtf	2021-09-29 오후 1:30	텍스트 문서	3.37KB
09.29-대선	2021-09-30 오후 12:22	한글오피스 2019...	51KB
대선 조사 21.09.29	2021-09-30 오후 12:12	한글오피스 2019...	24KB
대선 조사 결과자료(자재) 21.09.29	2021-09-30 오후 12:19	Adobe Acrobat 문...	815KB
대선결과 트루 21.09.29	2021-09-29 오후 5:18	한글오피스 2019...	78KB
대선결과 현황 21.09.29	2021-09-29 오후 5:55	한글오피스 2019...	29KB
한국 대선 09.29-성공1자 진행건	2021-09-29 오후 5:18	한글오피스 2019...	965KB
한국 대선 09.29-전체자료-2021-09-30	2021-09-30 오전 11:02	한글오피스 2019...	15,209KB
차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설문...	2021-09-29 오후 12:48	한글오피스 2019...	28KB
차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설문...	2021-09-29 오후 1:08	Adobe Acrobat 문...	436KB

○ 위 폴더 파일 중 '차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설문지 09.29.pdf' 파일은 2021. 9. 29. 여론조사 설문지로 확인되고, 그 문항은 '선생님께서도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다음 인물들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으로 확인됩니다.

차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설문지 09.29.pdf

문5]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

선생님께는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다음 인물들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명은 순환하여 불러 드리겠습니다.

[①~⑩ 순환]

- ① 안상수
- ② 원희룡
- ③ 유승민
- ④ 문석열
- ⑤ 최재형
- ⑥ 하태경
- ⑦ 홍준표
- ⑧ 황교안
- ⑨ 지지후보 없다
- ⑩ 모름/무응답

○ 위 폴더 파일 중 '전국 대선 09.29-성공1차 진행건.xlsx' 파일에 의하면, 2021. 9. 19. 강혜경이 실제로 실시한 여론조사(ARS 진행 방식)에서 응답한 사람(응답 시 'E'라고 표기) 516명(7,192명 중 응답자)으로 확인되고, 이는 강혜경이 국감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40만 원 상당의 비용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인원 500~600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국 대선 09.29-성공1차 진행건.xlsx 파일

번호	발신번호	전송번호	기타정보	기타정보	기타정보	기타정보	기타정보	비고	통화상태	응답여부	상대구별	통화시각	시작시각	종료시각	콜당시각	제시도	연통대역
54	02-779-88-010-3354-6074								통화완료	E		1	218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3:03.722:22:44
142	02-779-88-010-8285-8728								응답안함	E		1	172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04.421:19:37
181	02-779-88-010-5775-5549								통화완료	E		1	196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33.661:27:29
213	02-779-88-010-6218-5495								통화완료	E		1	159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1:54.921:22:17
284	02-779-88-010-6551-3780								통화완료	E		1	180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15.551:39:33
376	02-779-88-010-6184-6305								응답안함	E		1	160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29.821:17:25
401	02-779-88-010-3937-6748								통화완료	E		1	207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3:55.721:13:44
426	02-779-88-010-9793-8119								통화완료	E		1	146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00.421:13:41
442	02-779-88-010-4532-9209								통화완료	E		1	157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1:56.21:12:32
456	02-779-88-010-3333-8841								통화완료	E		1	241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3:27.721:14:32
466	02-779-88-010-3036-1075								통화완료	E		1	234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3:43.722:04:35
483	02-779-88-010-4023-9858								통화완료	E		1	170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29.261:15:93
486	02-779-88-010-8944-6565								통화완료	E		1	160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3:50.31:12:74
634	02-779-88-010-8339-6009								통화완료	E		1	168	2021-09-20	2021-09-20	2021-09-29	14:32:16.621:13:44

전국 대선 09.29-성공건수-2021-09-29

준비 NUM 7192 중 516 개 레코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위 516명 중 전술한 '선생님께서는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다음 인물들 중 누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로 답한 사람은 170명으로 32.9%에 해당하고, '홍준표 후보'로 답한 사람은 164명으로 31.7%에 해당하여 양자간 차이는 1.2%에 불과하였습니다.

○ 위 폴더 파일 중 '대선결과 로우 21.09.29.xlsx'에 의하면, 2021. 9. 29.자 여론조사결과 로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총 숫자는 2,038명인 사실이 확인되고, 위 파일의 최종 수정일시가 2021. 9. 29. 17:18인 점, 강혜경이 여론조사를 516명만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전술한 녹취록 상 명태균이 2021. 9. 29. 15:33경 강혜경에게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가 여성하고, 맞춰가 곱하기 한 해 갖고 한 2천 개 만드소'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결과 로우 21.09.29.xlsx 파일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			
지역별	서울	경기 인 천	대전 청	충 세종	광주 남 전북	전 북	대구 경 부 산	울 강 원	제
성별	남성	여성	-	-	-	-	-	-	-
더 불 어									
민 주 당									
당내 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지 지 후	잘 모 름			
통령 후					보 없다	무 응 답			
보 적 합									
도(R)									
국 민 의									
힘 당내									
대 통 령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 적									
합도(R)									
후 보 단	원희룡	하태경	지 지 후	잘 모 름	-	-	-	-	
일화(R)			보 없다	무 응 답					
지 지 정	더 불 어	국 민 의	정의당	국 민 의	열 린 민	기 타 정	자 지 정	잘 모	
당(R)	민주당	힘		당	주 당	당	당 없 음	무 응 답	
3	1	2	3	4	4	2			
4	2	2	6	4	4	4			
4	5	2	5	7	4	7			
5	2	1	3	5	3	5			
2	2	1	5	3	3	4			
5	1	2	2	5	1	2			
3	4	1	2	9	3	1			
4	2	1	3	3	3	7			
6	4	2	6	4	3	4			

○ 한편, '대선 조사 결과자료(자체) 21.09.29.pdf'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의 적합도는 '33.0%'이고, 홍준표 후보의 적합도는 '29.1%'로 확인되는데, 516명에 대한 조사 결과 양자간 지지율 차이가 1.2%에 불과하였음에도 지지율 차이가 3.9%까지 벌어짐으로써, 피의자 명태균이 2021. 9. 29. 16:50경 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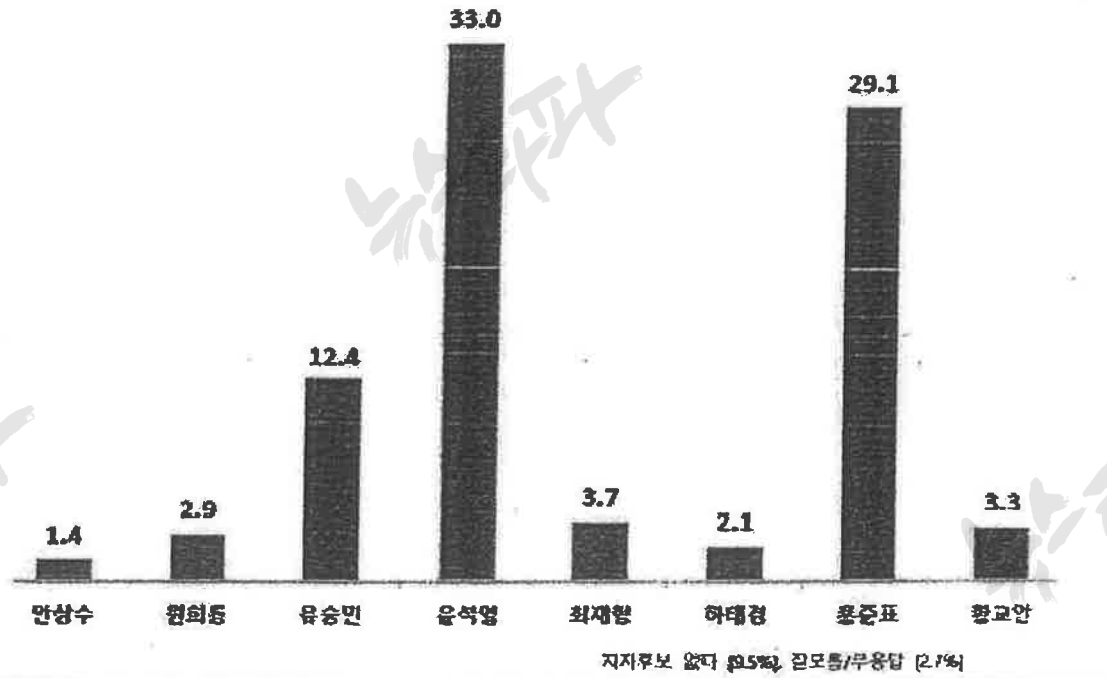
강혜경에게 '이거 그 다른 쪽에 하태경에게 나가는 거니까, 윤석열이를 올려 갖고 홍준표 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예 예 올라가는거라서 그 젊은 아들이 있다 이니까 무응답 한 예 그 개수 올려가지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지시한 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보고서에 '(n=2,038 단위)'라고 기재된 부분은 2,038명을 조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임

대선 조사 결과자료(자체) 21.09.29.pdf 파일

▣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 (n=2,038 단위)

국민의힘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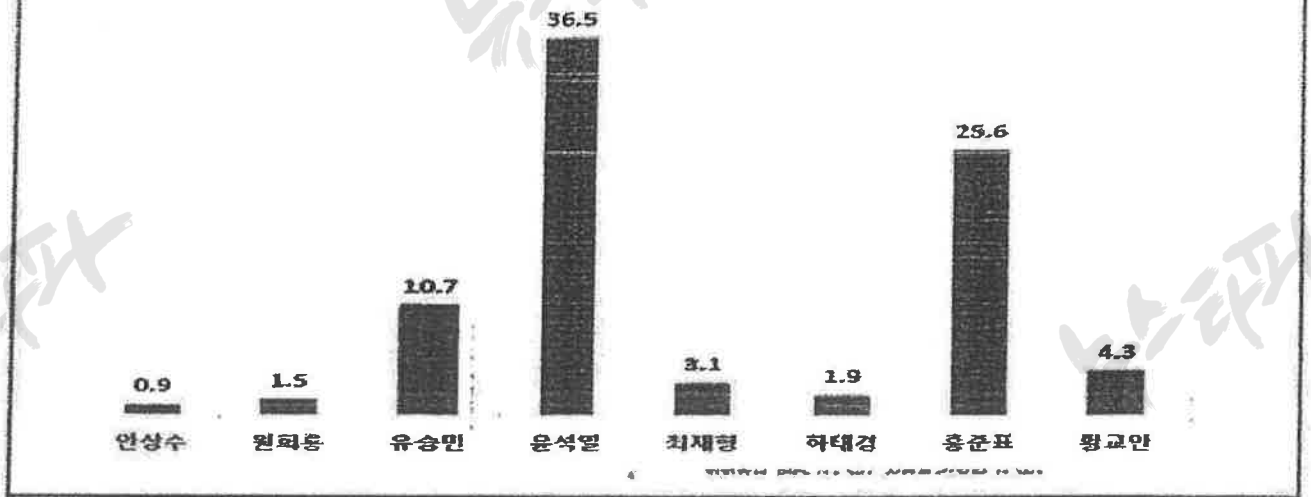


○ 결국 피의자 명태균과 피의자 강혜경의 2021. 9. 29.자 녹취파일과 같이 피의자 명태균의 지시에 따라 강혜경이 실제로 516명 여론조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2,038명 조사한 것처럼 조작하여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차이를 3.9% 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선 조사 21.09.30.pdf 파일

○ 국민의 힘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 (n=,2,008 단위%)

국민의 힘 당내 대통령 후보 적합도(R) (%)



○ 나아가, 2021. 9. 30.자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2021. 9. 30. '그리고 그걸 교차 분석하면 앞에 야당 의원 중 여당 그 사람 교체하면 나머지 떨어진 표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표나재?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총장 전화 했는데, 궁금해 하더라고.'라고 말한 내용과 같이 최종경선 가상대결에 윤석열, 홍준표는 고정인 상태에서 유승민, 최재형, 하태경, 원희룡이 들어가는 경우 변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 백

비율조정후.png 파일

2022. 대통령선거 자체여론조사 2008건 완료 (21.09.30)

연령대	득표	%	박용진	득표	%	국민의힘 최정호선 가실대결 1	득표	%	국민의힘 최정호선 가실대결 2	득표	%
18시~20대	360	17.9%	박용진	121	6.0%	권화홍	86	4.3%	유승민	261	13.0%
30대	278	13.8%	이낙연	679	33.8%	유승민	232	11.6%	윤석열	782	38.9%
40대	347	17.3%	이재명	636	31.7%	윤석열	764	38.0%	허태경	76	3.8%
50대	417	20.8%	주미애	112	5.6%	홍준표	533	26.5%	홍준표	524	26.1%
60대	413	20.6%	지지투보없다	349	17.4%	지지투보없다	337	16.8%	지지투보없다	318	15.8%
70대 이상	193	9.6%	함무름/무응답	110	5.5%	함무름/무응답	56	2.8%	함무름/무응답	47	2.3%
합계	2008	100.0%	합계	2008	100.0%	합계	2008	100.0%	합계	2008	100.0%

후보자	득표	%	안상수	득표	%	국민의힘 최정호선 가실대결 2	득표	%	지지정당	득표	%
서울	365	18.2%	안상수	20	1.0%	유승민	269	13.4%	국민의힘	715	35.6%
경기 인천	564	28.1%	권화홍	31	1.5%	윤석열	760	37.8%	국민의힘	400	19.9%
대전 충청 세종	235	11.7%	유승민	213	10.6%	최재형	79	3.9%	정의당	56	2.8%
광주 전남 전북	185	9.2%	윤석열	744	37.1%	홍준표	528	26.3%	국민의당	102	5.1%
대구 경북	233	11.6%	최재형	54	2.7%	지지투보없다	335	16.7%	국민연립	81	4.0%
부산 울산 경남	347	17.3%	허태경	36	1.8%	함무름/무응답	37	1.8%	기타정당	42	2.1%
강원 제주	79	3.9%	홍준표	531	26.4%	합계	2008	100.0%	지지정당없음	176	8.8%
합계	2008	100.0%	홍기연	86	4.3%				함무름	27	1.3%
			지지투보없다	270	13.4%				합계	2008	100.0%
성별	득표	%	함무름/무응답	23	1.1%						
남성	1072	53.4%	합계	2008	100.0%						
여성	936	46.6%									
합계	2008	100.0%									

○ 결국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2021. 9. 30.에도 실제 설문조사한 인원 1,015 명이 아닌 2,008명을 설문조사한 것처럼 여론조사 조작을 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PNR의 여론조작 사실

○ 전술한 2021. 9. 29.자 및 2021. 9. 30.자 여론조사는 모두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여론조사의 조작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하여 PNR에서 실시한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그 로데이터가 PNR에 존재하여 금번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여론조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피의자 강혜경 등과 PNR 대표 서명원의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의자 강혜경의 요청에 따라 PNR 서명원이 여론조작을 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 됩니다.

- 피의자 강혜경과 2021. 10. 14. 14:48경 서명원이 대화한 녹음에 의하면, 2021. 10. 16. 공표될 PNR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재명이 1등으로 나오자 서명원이 강혜경에게 설문안 문구를 바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1. 10. 14.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

강혜경	여보세요 예 대표님.
서명원	이래도 그 표가 나뉘어져요. 정당, 한쪽은 끝났고 한쪽은 안 끝났잖아요,
강혜경	그렇죠
서명원	안 끝난 쪽에는 반대표가 나와요, 역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더라도 무조건 이재명이 1등이에요 둘다. 윤이나 홍. 첫 번째 질문에서 홍이 없으니까, 차라리 2를 찍어버리던지, 아니면 다른걸 찍어버리는 식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가 나뉘어져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사보시면, 이쪽 당 결정된 이후에는 이 질문이 없어요
강혜경	아~
서명원	왜냐하면 그렇게 갈리기 때문에 빠른거거든, 이재명이 1등 나와요. 이거 조사 안해도 알아요. 거꾸로 보면 국민의 힘 윤석열 하나 넣고 이재명하고 이낙연을 각각 따로따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찍겠어요 안찍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역선택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u>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다 가는데 국민의힘은 나뉜다는 말이야</u> 당연히 누군가 하나 엄청나게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재명으로 쏠리지. 하나마나한... 알고 싶지도 않고.. 이것 자체가...

- 2021. 10. 22.자 피의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에 의하면, 서명원은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하여, 명태균이 정치자금법위반을 통해 배기동, 이미영에게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전해 듣는데, 결국 서명원은 미래한국 연구소가 의뢰하는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2021. 10. 22.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

서명원(05:06)	지금 그러면 정기 조사는 누가 돈을 대고 있는거야
강혜경	돈을 정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차기 군수와 시장 나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찌보면 빙 뜯는거예요
서명원	대선조사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잖아 대선 쪽에, 후보 진영 쪽이나 아니면 그기에 관련된 후원자나, 어쨌던 말 그대로 얼굴마담이나, 광 팔 사람, 광팔 사람이 돈을 데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확실해야 돈을 데지
강혜경	여기 저기서 4-5군데 빙을 뜯고있어요, 대표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명원	안 그러면 일이 안되지 그건 당연한거지
강혜경	<u>최종 후보 결정되면 한 몫으로 더 주는 걸로</u> , 그 전까지는... 일단은 국힘에서 후보가 되면, 이쪽에서는 경남권이나 경북권에는 어떻게든지 정해져있잖아요, 더불어 쪽보다는 국힘이, 이쪽에 유력한 사람들 군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공천 좀 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돈 내어보라고 해가지고
서명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누구 밀어요, 윤을 밀어요?
강혜경	윤, 처음에는 <u>홍을</u> 시작했다가 <u>홍을</u> 밀었는데, 이제 윤 쪽에서 러브콜이 온거예요. 명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좀 해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서가지고 윤을 하고 있어요
서명원	그러면 김종인이라도 윤이겠구나, 방송에서도 맨날 보니까, 윤이더라고
강혜경	예. <u>홍쪽에 지금 대 준 사람 박재기라고,,,</u> 혹시 아세요 개발공사 그 분이 들어가면서 자금줄이 완전 막혀버린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한 것도 있는데, 어찌보면 우리에게도 <u>돈줄이 있어야 되잖아요</u>
서명원	후원자가 돈을 대야지 후보자가 돈이 어디있어. 지금 다른데는 지방선거 일반조사 다 시작했거던 근데 여기는 안하더라고
강혜경	음 이제 11. 5.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거예요. 다들 보는 사람이 우리가 윤을 밀고 있으니까... 다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홍이 더 센데, 왜 윤을 미느냐고, 윤은 자꾸 사건도 터지는데, 일단 5일날 지나고 보자 다들
서명원	나도 홍이 될 거라고생각 해, 근데 아무리 봐도 윤이 계속해서 안떨어지는 건 영문을 모르겠어
강혜경	윤이 되어 되요... 안 그러면 우리 쪽쪽 망해요, 안그래도 망했는데, 더 망해요
서명원	알겠습니다. 어쨌던 내일 입금 꼭 부탁드립니다

○ 특히 2021. 10. 28.자 피의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에 의하면, 서명원이 2021. 10. 30. 공표될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강혜경에게 '지역 1번이라는데서 드래그해서 8번까지나 9번까지 쪽 한번 불러지정하면 파랑게 변하잖아요 그거 오른쪽 누르고 복사, 그리고 나서 엑셀표에 1번 바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붙여넣기 옵션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주변서식 맞추기 붙여넣기 한번 눌러보세요'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여론조사 조작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서명원은 '퐁이 되면 안되는데, 퐁이 되면 안되요, 윤이 되어 됩니다.'라고 말하는 등 심지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중에게 공표되는 여론조사 조작 그 결과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여론조사 조작 방법은 현재 PNR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위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서명원에게 추궁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 백

2021. 10. 28.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

서명원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카톡 보낸거.

강혜경 예

서명원 열어보시면, 빨간색갈 부분이 쿼터 표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지역마다 달라질거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무선이라고 되어있는데, 슬래시 0, 화면 한번 보세요. 발송화면에 성 연령 지역에 쿼터표 부분에 지역 1번이라는데서 드래그해서 8번까지나 9번까지 쪽 한번 블록지정하면 파랗게 변하잖아요 그거 오른쪽 누르고 복사

강혜경 네

서명원 그리고 나서, 엑셀표에 1번 바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붙여넣기 옵션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 주변서식 맞추기 붙여넣기 한번 눌러보세요

강혜경

서명원 지금 대표님 화면에 보이는

강혜경 우리 시스템에 화면에 보이는 1번부터 10번까지 쪽 있잖아요 그 화면에 지역 1번이라고 있잖아요 표 왼쪽에

서명원 아... 있어요

강혜경 거기서부터 8번까지 정도 어쨌던 7번까지 끝까지는 해야 돼, 7번은 나오게 파란색으로 블록지정이 되잖아요

서명원 예 됐어요

강혜경 오른쪽 키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엑셀 화면에 R열에 1번 위에 빈칸 있잖아요 그기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붙여넣기 옵션에 원본 서식 말고 주변서식 맞추기 있어요. 그걸로 붙여넣기. 그러면 1번이 제대로 들어왔나요 가끔 붙여넣기 브라우저에 따라서 아래 붙여지기도 하고 위에 붙여지기 할수도 있고 그러거든 붙여넣기하면.... 바꿨나요

- 이외에도 피의자 강혜경, 서명원 사이의 2021. 11. 23.자 대화녹음에도 2021. 11. 27. 공표될 여론조사 관련하여, '짜집기 하다가 잘 못 붙여넣었는거 같은데'라고 말하는 등 여론조작을 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됩니다.

2021. 11. 27.자 강혜경, 서명원 대화녹음

서명원	그 카톡 2번째 준거, 여기가 데이터가 많이 꼬인거 같은데, 일부가 연령대하고 성별이 바뀐거 같애, 느낌에 그런데, 어디서 바뀐지를 모르니까.
강혜경	아우~~
서명원	성별이 4, 5, 6, 7이 있어, 3. 4. 5. 6이 있어
강혜경	어머나 그거 제거하면서 그랬는가봐요. 하동에 사는지 안사는지 물어보면서
서명원	잠깐만 사나? 안사나? 이거는 데이터 작업하다가 뭔가 문제 생긴거 같은데....
강혜경	예, 예 그런거 같아요 짜깁기 하다가
서명원	짜깁기 하다가 잘 못 붙여넣었는거 같은데, 어디서 짜깁기 하다가 잘 못되었는지 구분이 안되니 중간부터 벌써 6이 있거던. 잠깐만 여기는 있나보자 유선은 뭐 5지역이라고 성별에 5가 하나 있어서 그 애는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거고, 무선은.... 그....
강혜경	많아요 그게?
서명원	그게 3, 4, 5, 6이 어마하게 많아. 3, 4, 5, 6 갯수를 보면.... 138개.. 빼버릴까
강혜경	할~~ 짜깁기 하다가 잘 못했는가.. 아까 한번 꼬여가지고 바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게 미리 꼬여있었는거봐요
서명원	어떻게 해
강혜경	그러면
서명원	그 애들 빼버릴까 그냥
강혜경	빼면 숫자가 줄어들죠
서명원	많이는 아닌거 같애
강혜경	빼주세요
서명원	일단 빼볼게
강혜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원	네

여 백

5. 결어

- 이상과 같이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 과정에 실제로 피의자 명태균이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과 함께 개입을 하였는지(「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의 관련성), 구체적인 개입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본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 먼저 피의자 명태균이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이준석, 김건희 여사 등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자료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데,
 - 피의자 명태균이 제공한 여론조사의 경우, 미래한국연구소 및 PNR의 여론조사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는 피의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들의 고의 내지 공모관계를 입증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진위여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미래한국연구소가 제20대 대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81회 여론조사는 공표용, 비공표용 모두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데, 현재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PNR 사무실 및 PNR의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강혜경이 제출한 USB 내 로데이터를 통해 구체적 여론조작이 확인되고,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현재 녹음파일로는 구체적인 조작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PNR 및 PNR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PNR의 상대 거래업체 중 아래 3곳이 서버 보관장소로 의심되고,
- ① 주식회사 (2021년도 36회 거래, 총 7,100만원 / 2022년도 36회 거래, 총 1억원)
- ② 주식회사 (2021년도 11회 거래, 총 2억 1,500만원 / 2022년도 1회 거래, 총 2,700만원)
- ③ 주식회사 (2021년도 1회 거래, 총 2,700만원 / 2022년도 3회 거래, 총 1억 2,000만원)
- 그 외 서명원의 진술 등으로 특정되는 서버 보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함

2024. 10. 24자 서명원 1회 진술조서 中

- 문 자동 저장되는 결과가 Raw-data(이하 로우 데이터) 인가요
- 답 예,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제 컴퓨터에 엑셀로 저장됩니다. 그 데이터에는 누구와 몇 초, 몇 분 통화했는지 여부까지 자료에 수록됩니다. 수치를 조작하려면 그것까지 다 조작해야 하는데 통신사에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문 이를 위해 큰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 사무실 규모가 커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답 장비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공간임대를 하여 그곳에 보관하는 것이고, 인터넷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문 IDC는 어떤 업체인가요
- 답 여러 업체가 있는데 주로 SK, KT, LG 등 통신사에서 운영합니다.
- 문 그렇다면 사무실은 서울시 외에는 지방에는 설치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PNR 관련 전자정보가 서명원의 휴대폰, USB 및 그 외 외장하드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서명원의 신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합니다.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고, 피압수자의 참여 하에 압수한 저장매체로부터 본건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저장매체는 신속하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VII 결론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강해경의 진술 및 피의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내역, 확보한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한정되어 있는바,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작성자

검 사

현동길

이승현

이강우

양준석

남상오

홍등불

김상직

박진형